



연금저축 바로 알기

# 당신의 연금저축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여기저기서 연금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은퇴 후 좋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뿐 정확하게 아는 이들은 적다. 연금저축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본다.

생로병사는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소 죽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꺼려한다. 죽음에 대한 대비가 막연한 것도 이때문이다. 인생의 마무리를 멋지게 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태도와 죽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또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

은퇴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직장인은 언젠가 은퇴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는 남의 이야기 인양 꺼려 한다.

물론 은퇴 후 행복한 삶의 조건이 금융자산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융 자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금을 통해 은퇴 이후에 삶에 대해 좀 더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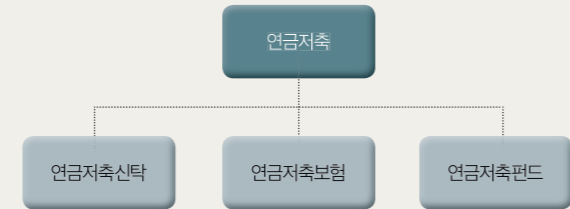
면 은퇴 이후는 물론 직장에서의 삶 또한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1)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운용사에서 각각 운용되고 있다.

세 가지 상품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신탁, 보험, 펀드라는 금융 상품에 일정기간 납입 후 돌려받는 연금의 성격이 추가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 연금저축의 종류



① 원금보장 측면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만기까지 보유 시 해당 금융회사



# RETIREMENT

가 부도나지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시장상황과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 ② 수익성 측면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의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나며,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구성과 시장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과거 운용성과를 살펴볼 경우, 납입 시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저축 펀드가 가장 우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초기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신탁보다 소폭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 ③ 납입의 자율성 측면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보험 계약상 정기적인 납입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한도(1,800만원)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시장 상황을 감안

하여 투자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

## ④ 상품의 다양성 측면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좌당 하나의 상품으로 운용되며 상품 선택의 폭이 크지 않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을 비롯하여 지역별, 섹터별 다양한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연금저축펀드를 가장 우월한 투자수단으로 볼 수 있다. 구조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된 시점에서 정기예금금리와 공시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획기적인 수익률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세심한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만 전제되어 있다면, 원하는 시점에 다양한 상품에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유연한 자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주형래

KEB하나은행 투자상품서비스부  
포트폴리오 매니저  
jhr0728@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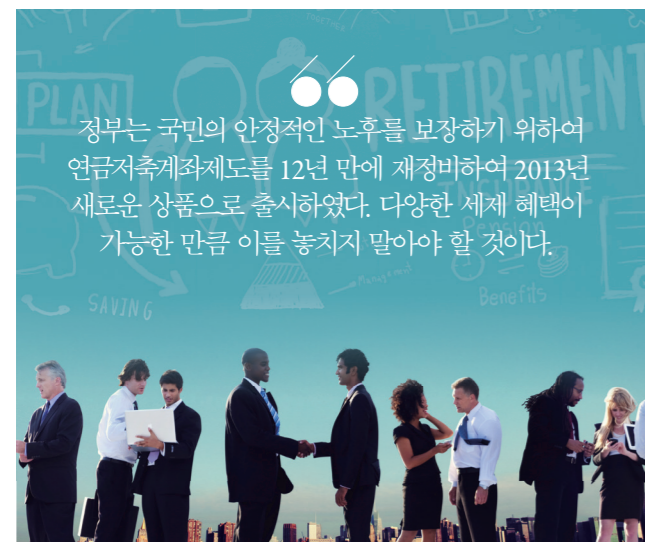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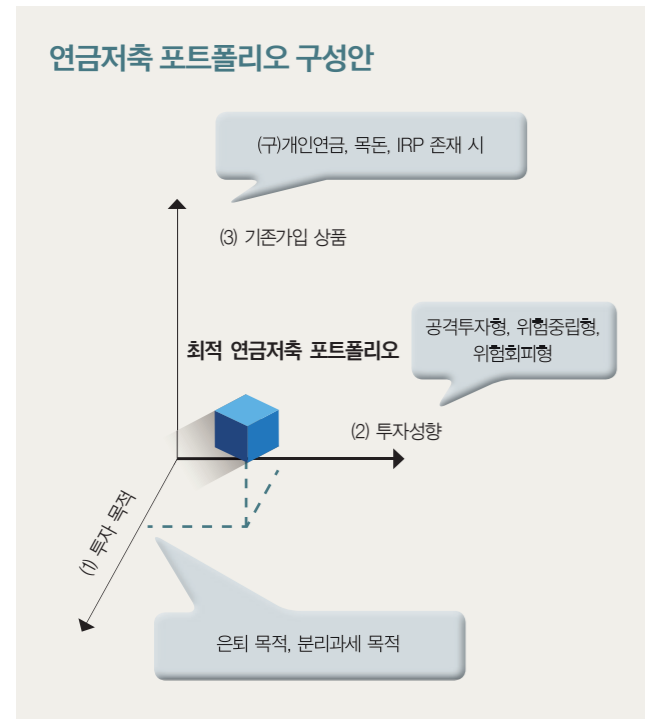
▶ 학력·자격증  
연세대 경영 / 통계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CAIA, 투자자산운용사

▶ 경력  
미래에셋생명 자산운용본부 해외채권 및 주식 담당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포트폴리오 매니저  
국내 및 글로벌 채권시장 분석 및 전망, 투자상품 분석 및 개발

**(2) 연금저축의 혜택**

충분한 세수 확보를 위하여 대부분의 질세 혜택이 사라지고 있지만,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하여 연금저축계좌제도를 12년 만에 재정비하여 2013년 새로운 상품으로 출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세제 혜택이 가능한 만큼 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각 자금흐름 시점별로 살펴보도록 하자.



**① 연금저축 납입 시**

연금저축은 매년 400만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하여 400만원(월 33만원)을 모두 투자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 528,000원의 현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생긴다. 다시 말해 400만원을 투자해 원금으로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매년 528,000원(+13.2%)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가 운용되는 중에는 과표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이연으로 인한 재투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② 연금저축 수령 시**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3.3~5.5%의(연령별 차등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 16.5%의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은 해외펀드 중심으로 납입한도금액인 1,800만원까지 납입 후 자유롭게 중도해지하여 세테크에 활용하고 있다.

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아 최고 세율 41.8%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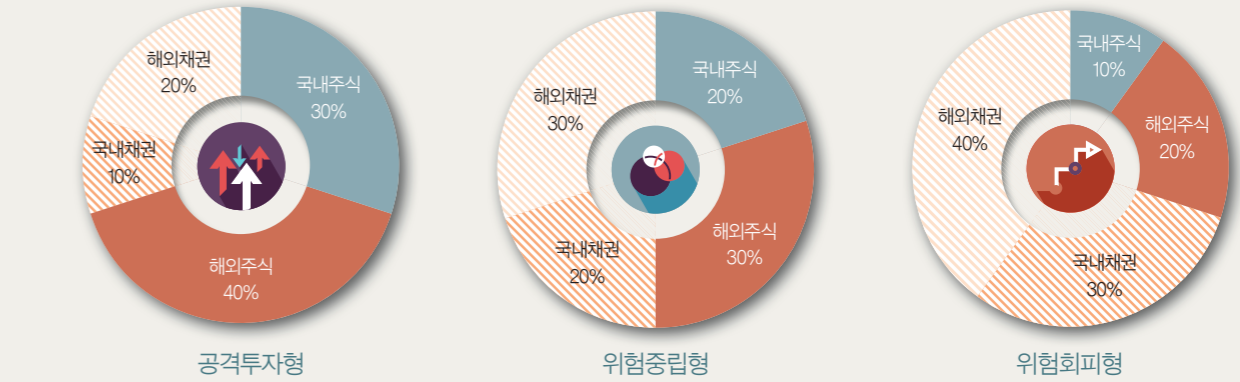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필수적인 생활을 위해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철저한 성과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연금 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해 3가지 측면에서 각 항목별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투자 목적**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구성 시 안정적인 은퇴 자금 마련 및 분리과세여부에 따라 투자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일반적인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한 은퇴 준비 목적일 경우, 세액 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 이내로 납부하며,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를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반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객의 분리과세가 목적이라면, 개인별 납입한도 1,800만원을 전액 채우며 시장상황에 따라 세심한 리밸런싱 전략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투자성향별 포트폴리오**



**② 투자성향**

만약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 위험중립형, 위험회피형 세 가지로 구분할 경우, 공격투자형은 '위험자산 70%+안전자산 30%'로, 위험중립형은 '위험자산 50%+안전자산 50%', 위험회피형은 '위험자산 30%+안전자산 70%'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목적의 투자라면 국내주식형보다는 해외펀드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③ 기존가입상품**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구성 시 이미 투자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첫 번째로 고객 포트폴리오 내에 2000년 말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이 있을 경우, 이는 과거의 고금리 상황을 반영해 최저보증이율 4~7%의 고금리를 제공하고, 연금 수령 시 전액 비과세가 때문에 연금수령 시까지 보유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존 연금저축계좌에 목돈이 투자되어 있을 경우 기존의 목돈 자금은 중위험 중수익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며, 매월 입금되는 적립식 자금은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운용하여 적립식 효과를 극대화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기존의 IRP와 연금저축이 중복될 경우, 둘을 합산한 세액공제한도가 700만원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금액을 함께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연금저축 어디로 이동해야 하나?**

연금저축의 경우, 특히 단기간의 시장전망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

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공격적인 금융기관보다는 다소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 4월부터는 연금저축 이동에 대한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 상품판매에 급급하기보다는 나의 안정적인 수익을 지킬 수 있으며, 철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PB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연금저축은 단순한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은퇴 후 반드시 필요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바뀔 것이다. 당당하게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math>H</math>

**summary**

- ①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자산관리뿐 아니라 세테크를 위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은퇴 관리 수단 중 하나이다.
- ② 연금저축 수단 중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연금저축펀드가 가장 우월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 ③ 투자목적, 투자성향, 기존가입상품에 대한 세밀한 분석 이후 연금저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 ④ 연금저축계좌 간소화 서비스가 진행 중인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금융기관과 철저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PB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